

경찰·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협약



고성경찰서와 고성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 오후 2시 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동으로 학교폭력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내 22개교 학생회장과 학생부장 등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고성경찰서는 참석 교사 및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자를 배부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전개



고성지역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이 지난 12일 오후 2시 고성군과 고성경찰서, 고성교육지원청, 시민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성 시가지와 간성초, 고성중고 일원에서 전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전단지 배부 및 홍보활동을 펼쳤다.

자율방범연합대장 이·취임식



고성군 자율방범연합대장 이·취임식이 지난 11일 오전 11시 고성군 여성회관에서 회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제5대 김형모 회장이 이임하고 제6대 임기복 회장이 취임했다. 사진은 이임하는 김형모 회장이 취임하는 임기복 회장에서 연합대기를 전달하는 모습.

경조사·모임·구인·구직·개업
생활정보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 681-1666~7 ◆팩스 : 681-1668
◆이메일 : goseongnews@hanmail.net

※매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된 내용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자 신문에 게재해 드립니다.

보건소 탁순화씨 중앙회장 표창

외식업중앙회 고성군지부 제47회 정기총회 ... 회원 자녀 장학금 전달

한국외식업중앙회 고성군지부(지부장 김창길)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간성을 소재 고성군보건소 3층 대회의실에서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4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고성군보건소 위생담당 직원 탁순화씨가 중앙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 장미경양식 흥귀봉씨와 아야진찻집 용광열씨가 강원도지회장 표창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회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도 있었다. 동우대 치위생과 권수진 학생과 고성고 박성룡 학생이 강원도지회장 장학금을, 고성고 이슬 학생과 동광중 이담비 학생이 진로 장학금을 받았다.

또 간성합동과 거진합동이 공동으로 경동대 김광진, 강원대 최병욱, 고성고 김다빈, 거진중 김채원 등 4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김창길 지부장은 인사말에서 "물가가



지난 13일 열린 한국외식업중앙회 고성군지부 정기총회에서 김창길 고성군지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경제난이 계속되면 우리 음식점업들은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어렵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하는 사업마다 변장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핵안보 정상회의' 대비 해상경계 강화

속초해경 경비함정 40% 증가 배치 ... 파·출장소 근무 2부제로 전환해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홍희)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는 '2012 서울 핵 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해상경계강화에 돌입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는 세계 핵무기 보유국 및 대 테러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영국 등 60여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핵 테러 방지와 핵물질 안전 확보 대

책' 등을 논의하는 국제적 행사다.

이에 속초해경은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일(D-15)부터 주요 해양시설과 취약 항포구 등에 경비함정을 40% 증가 배치하고, 파·출장소 근무를 3부제에서 2부제로 전환해 해상경계강화에 들어갔다.

또 전 경찰력을 비상 소집체제로 전환하고 정박함정과 122구조대의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만일을 사태를 대비해 접적해역(NLL·특정해역) 출어선의 월선 방지 등 어로보호를 강화한다.

속초해경은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글로벌 코리아 품격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 아래 이번 해상경계강화 비상발령을 핵안보 정상회의가 종료되는 27일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최광호 기자

월남참전전우회 나라사랑 실천

태극기와 깃봉 구입해 회원 가정에 배부

고성군 월남참전유공자회는 3.1절을 맞아 나라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태극기와 깃봉 깃대를 구입, 참전유공자 각 가정에 배부하고 직접 찾아가 태극기를 달아주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젊은이가 태극기를 배낭에 달고 행군하는 모습이 보여 차를 세워 사연을 물어보니, 본인의 이름은 원종아(30세)로 충남 보령에 살며 13공수여단에서 부사관으로 생활하다가 체력과 자신감 부족으로 지난 1월 중사로 전역했다고 한다.

그는 전역한 것이 후회가 돼 건강도

보강하고 나라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100일간의 일정으로 충남 보령 집에서 서해 남해를 거쳐 50일만에 동해안 천진에 도착했다. 원씨는 통일전망대를 거쳐 서울과 인천을 지나 고향집으로 갈 예정이다.

월남참전유공자 고성지부 회원들은 원씨에게 나라사랑의 일념으로 가정에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한다는 말을 전하고, 젊은 몸으로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원종아씨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위로를 보냈다.

백옥식 시민기자



월남참전전우회 회원들이 토성면 아야진 임복성 회원 가정에 태극기를 달아주는 모습(위). 나라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태극기를 배낭에 달고 국토행군을 하고 있는 원종아씨가 국도 7호선 토성구간에서 태극기를 펼쳐보이는 모습(아래).